

청소년과 사회가치관

최근 초등학교 어린이를 모방해 어린이를 살해한 경악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다. 폭력이 넘쳐 살인까지 저질러진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청소년문제'는 별로 새로운 것도 없는 '식상한' 사회적 사실이 된지 이미 오래다.

최근 초등학교 어린이를 모방해 어린이를 살해한 경악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다. 폭력이 넘쳐 살인까지 저질러진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청소년문제'는 별로 새로운 것도 없는 '식상한' 사회적 사실이 된지 이미 오래다.

로 등장하였고 점차 다수를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다수가 따르는 규범이, 그리고 지배세력이 지니고 있는 규범이 한 사회의 지배적인 규범이 된다'는 공식대로, '전도된 규범'이 우리사회의 지배적인 규범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유승무
(중앙승가대학교 교수·사회학)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제 우리사회의 지배세력들은 그리고 다수는, 자신들은 할 수 있거나 사회적 약자들은 해서는 안될 각종 '금지적 규범'을 생산하여, 사회적 약자들에게 강요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을 자신의 술 접대부로 흡수했는가? 그것은 독자들께 함께 이 상품의 생산자를 확인함으로써 이 상품의 생산을 중단시키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이다.

토대로 '청소년문제'라는 상품을 생산해 내고 있으며, 동시에 청소년 일반이 상품의 생산자인양 선전함으로써 어린 희생양들을 재생산한다. 그러나 반증해 보자. 주지하듯이 청소년기는 자신의 정체성에 관심을 갖는 시기일 뿐만 아니라 사회의 규범을 가장 왕성하게 격렬하게 학습하는 시기이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기존의 사회규범체계 속에 태어나 사회의 전도된 가치기준이다. 차근차근 따져보자.

나리양 주검 "온국민 분노"

유괴범 검거... "돈 때문에 어린생명 해치다니"

이름도 예쁜 박초롱초롱나리양이 끝내 주검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저항능력이 없는 어린이를 불모로 일확천금을 노리겠다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유괴사건으로 온사회가 분노했고, 분노와 함께 우리들은 범인들에게 나리양을 온전히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분명 용서받지 못할 일을 저질렀지만 우리들의 분노와 호소는 나리양의 무사한 귀가를 위해서였다. 나리양만 데려다주면 없었던 일로 하고 싶은 것이 부모마음이었다. 대통령과 검찰총장도 범인들이 나리양을 돌려보내고 자수하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관용을 베풀겠다고 약속했다. 행여 좁혀오는 수사망에 쫓겨 극단적인 생각으로 치닫지 말기를 범인들에게 당부했다.

나리양 또래의 어린이들은 거리에 나서 범인과 국민들에게 애원하지 않았는가. "나리는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어도 어

른들이 사랑과 바꾸자면 바꿀 만큼 순진한 초등학교 2학년이예요. 그런 아이를 데려다 어찌자는 거지요." 범인들도 사람일텐데, 마음의 움직임이 있길 기대했는데. 그런데, 말 그대로 천인공노(天人共怒)할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유괴 용의자 6명 가운데 1명은 12일 붙잡혔다. 나리양이 다녔던 무용학원의 여교사였다. 불안감에 지쳤는지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유괴목적이 1천6백만원의 빚을 갚기 위해서였다니, 더구나 그녀도 임신 8개월의 몸이었다니 너무 어이없다. 어린이들은 어른들에게 이렇게 묻는다. "아는 동네 아줌마가 길을 물어보더라도 대답하지 않고 집으로 뛰어가야 하나요." 이제 어른들이 아이들의 질문에 대답해야 할 차례다.

정성운 기자



"명예보다 마음공부"
日 이나모리회장 출가

일본 '벤처기업의 신화적 인물' 교세라사(社)의 이나모리 가즈오(65·稻盛和夫) 명예회장이 약속대로 7일 교토 임제종 원복사(圓福寺)에서 출가를 했다. 범명은 이름의 첫글자를 딴 '다이와(大和)'.

이나모리 명예회장은 출가 "인생의 목적은 지위나 명예를 추구하기 보다는 마음과 인격을 닦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남은 여생을 수행과 함께 편안히 보내고 싶다"고 밝혔다. 우리의 정·재계 인사들이 음미해 볼 말이다.

지난해 9월 출가 의사를 밝힌 화제를 모았던 이나모리 명예회장은 올해 초 교세라, DDI(제2 전화) 등 자신이 키워온 기업들의 회장직에서 물러난 뒤 출가준비를 해왔다. (사진=요미우리신문 제공)

줄이는 장기기증 6명 새생명

형제자매들이 보은의 장기기증 릴레이를 펼쳐 이틀동안 6명이 신장 수술을 받아 감동을 주고 있다.

처음 자신의 신장을 기증한 사람은 주부 정여민씨. 정씨의 신장은 최승곤씨에게 이식됐다. 그러자 이를 고맙게 여긴 최씨의 누나 상복씨도 신장을 기증했고, 이정천씨에게 새살을 주었다. 이씨의 동생 장현씨의 신장은 왕원기씨에게 이식되었다.

참사고 유족 1천억원 사회환원

대한항공 광 추락사고로 아내와 어린 남매, 장인 장모 처남 등 일가족 8명을 한순간에 잃은 한양대 병원 신경전문의 김희태(34)씨가 "자신에게서 상속받을 1천억원대의 재산을 모두

테레시수녀 어복

○... "진정한 사랑은 이것저것 재지 않습니다. 그저 줄 뿐입니다. 아플 때까지 주십시오."
○... 기도하면 믿게 될 것입니다. 믿으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면 섬기게 될 것입니다.
○... 나는 모든 인간에게서 신을 봅니다. 내가 나환자의 상처를 씻을 때 예수님을 돌보는 느낌을 갖습니다. 어찌 아름다운 경험이 아니겠습니까.
○... 우리는 가정을 고통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는 곳으로 서로 용서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 많이 가질 수록 줄수 있는 것은

"쌓아두면 둘수록 줄수있는 것 적어요"

적습니다. 가난은 놀라운 선물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 만일 달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면 물론 그곳에도 갈 것입니다.
○... 이 전쟁에서 단기간에 우리가 모두 두려워하는 승자나 패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고통과 참상, 당시들의 무기가 저지른 생명의 손실을 정당화하지 못할 것입니다.(1991년 조지 부시와 사담 후세인에게 보낸 서한)
○... 나는 빈민들의 가난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배고프고 헐벗고 집없는 사람과 불구자, 맹인, 나환자, 아무도

자선병원 운영자금과 장학자금 등으로 내놓겠다"고 11일 밝혔다. 재산상속과 기증에 필요한 실무를 변호사에게 위임한 뒤 김씨는 "생전에 전재산의 사회환원 의사를 밝혔던 장인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므로 장인의 선행이지 나의 선행이 아니다"며 "불우한 이들을 내 가족으로 생각하고 평생 이들을 위해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해 술로인해 14조원 소모

한해 술값과 그에따른 경제사회적 비용은 95년 기준으로 14조 원이라는 추정치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1일 정책토론회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비용은 음주로 인한 질병치료에 드는 의료비와 생산성 손실 비용을 합한 것이며, 음주관련 범죄피해 등은 포함하지 않았다. 술값까지 포함한

음주의 경제사회적 비용은 95년 GNP의 4%에 이른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주류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거둬 건강증진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교통사고 사망자수 세계 9위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량은 세계 5위를 자랑할 정도로 성장했으나 교통사고 사망자수에서는 세계 9위로 기록돼 여전히 '교통사고 왕국'의 불명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11일 발간한 '97교통안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8만6천7백99건으로 95년에 비해 6%, 사망자수는 1만3천1백74명으로 21%씩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1만2천6백53명으

서울 음식쓰레기 도쿄의 3배

'서울시민들은 일본의 도쿄시민들보다 2.7배나 많은 쓰레기를 버린다.' 국제농업개발원이 5일 발표한 '서울시의 음식쓰레기 배출량 조사'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서울시민들의 하루 음식쓰레기 배출량이 6천5백톤으로 인구 수가 비슷한 일본 도쿄의 2천3백80톤보다 훨씬 많았다. 특히 서울은 음식쓰레기중 72% 가량이 육류 생선 채소류 등 수분함량이 많아 악취를 심하게 발생시키는 쓰레기로 도시락 김밥 초밥 등 수분함량이 적은 음식물이 70%를 차지하는 도쿄와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보편적 도덕의식 상실시대

따라서 청소년문제의 해결은 지배세력들과 다수가 만들어 낸 전도된 규범구조를 고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그리고 점차 고지식하게 규범을 잘 지키는 전지의 마음 한구석에라도 '바보'로 낙인찍히거나 않을 거 하는 두려움이 또아리를 틀고 들어오게 되었다. 바로 다수의 이익을 위한 보편적 도덕의식 소수의 이익을 앞세운 특수기치 앞설 무릎을 꿇게 된 것이다. 앞설가상으로 산업화와 도시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이 게임에서 승자들은 우리사회의 지배세력으로

불사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명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 내부장엄불사(수미단, 신중단, 영단, 단집...) 등등
- 불교 목공예품 - 법상, 경탁, 경상, 불전함, 목어, 호신인등, 연설대, 등등 목공예품 일체

「본 조각원의 소품은 금속 합금이 아닌 99.9% 청동으로 조성합니다」

▷ 서울사무실 : 서울 종로구 견지동 81번지 2층 TEL. (02)738-8447

▷ 대전사무실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 1동 807번지 TEL. (042)483-8466

▷ 공방연구소 :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225-1 TEL. (0416)857-5925

대표 이진형 합장

불사의 전당 불교조각원